

김성근 감독이 못매 맞는 이유



김성근 감독은 2014년 11월 청와대 강연에서 “리더가 욕을 바가지로 먹어도 내 뒤의 사람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 한화는 그런 팀인가? 스포츠동아DB

김영준의 18.44m

위장 선발=승부수, 흑사=벌떼야구 미화
150억원 투자한 구단에게 “돈 없다” 불평
악자 위하는 국민정서 불구 팬들 비난 쇄도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은 추리소설의 형식을 띠지만 본질은 열린사회와 닫힌사회의 대립을 이야기한다. 중세 유럽의 수도원에서 연쇄적으로 수도사들이 살해된다. 열린사회를 상징하는 영국 출신 윌리엄 수도사가 미국 속의 의혹을 풀어 가는데 끔찍한 것은 연쇄살인 자체가 아니라 그 동기였다. 예수님의 옷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수도사들이 읽지 못하도록 수도원의 권력자이자 닫힌사회를 상징하는 호르헤 수도사가 책에 독을 바른 것이다. 수도원이라는 폐쇄된 공간의 권력자는 관용이 아니라 말살을 통해 세상의 진보를 막으려 한 것이다. 내 이상이 옳기에 내가 행하는 수단까지 정당화된다는 발상이 섬뜩하다.

기자는 본질적으로 정보유통업자다. ‘기레기(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라는 조롱에는 ‘기자가 정보를 적극적으로 왜곡하거나 정발 독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못 준다’는 대중의 불신이 깔려있다. 통신기술이 발전할수록 취재원과 대중을 중계하는 저널리즘의 위기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뉴욕대 미첼 스티븐스 교수의 ‘지혜의 저널리즘’에서는 ‘이제 뉴스는 팩트가 아니라 관점을 제시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이 세상에 객관적 진실은 없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가령 한화 감독이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자일지라도 그의 말이 한화 야구단의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한화 감독의 ‘전해’일 뿐이다. 그러나 과거에, 어쩌면 지금도 일부에서 그의 말은 ‘복음’처럼 받아들여졌다. 이견을 표현해 ‘역린’을 건드리면 ‘파문’당하기 십상이다. 한국사회의 병폐인 파시즘적 폭력에 다름 아니다.

최근 만난 중견급 현역 야구감독은 “야구가 변

했다”는 말을 했다. 이제 ‘제아무리 감독이라도 이상한 야구를 하면 팬들이 가만두지 않는 세상’이 됐다’는 뜻으로 들렸다. 예전엔 팀의 사정을 가장 잘 안다는 보호막을 가진 감독의 말은 무비판적으로 수용됐다. 감독의 영향권 아래 놓인 기자가 설령 정보를 비틀어도 그런 줄 알아야 했다. 위장선발은 승부수로, 흑사는 벌떼야구로, 사인홍치기는 당한 높이 바보로, 150억원을 투자한 구단한테 “돈이 없다”고 욕보여도 그냥 통할 수 있던 시대였다. 그러나 이제 야구인과 기자는 그냥 넘어가도 팬들이 용납하지 않는 세상이 왔다. 정보의 대칭성이 이뤄진 세상에서 눈을 뜬 팬들은 ‘아닌 야구를 아닌 야구’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화야구의 흑사에 대해 “팀 내부 사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감독의 일축에 굴하지 않는 비판적인 팬들이 영화 ‘스포트라이트’의 대사처럼 “아이를 키우는 것도 마을 전체의 책임이고, 학대하는 것도 마을 전체의 책임”이라고 맞서는 세상이 온 것이다.

김성근 감독은 2014년 11월 청와대에서 강연을 했다. 거기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한다는 것 자체가 리더의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지금 몸소 그 자격을 실천하고 있다. 강연 뒤 동아일보에는 비판 사실을 실었다. ‘결과만 내면 대중은 가만있으니까 소용 따위에 구애받지 말고 뜻한 바를 강행하라’는 충고(?)는 지금 청와대가 듣고 싶은 말일 뿐이라는 요지로 기억된다. 세월이 흘러 이 강연을 다시 보니 왜 한화가 팔찌를 하는데도 약자에 약한 국민정서에 안 맞게 적응은 야구인, 팬들이 이 팀의 몰락을 동정하지 않는지 알 것 같다. 이제 눈을 뜬 야구팬들은 규칙을 어기는 것만 아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드는 야구의 편협함과 촌스러움을 거부하는 것이다. 남득가능하고 열린 과정을 원하는 시대다. 김성근 야구를 지지하지 않는 팬 상당수는 김 감독의 무능을 탓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김 감독의 무례를 혐오하는 것이다. 한국사회를 이끄는 위정자들과 기업인들이 “세상 손가락질을 이겨야 리더”라는 마인드의 소유자의 강의를 들어왔다고 생각하니 ‘장미의 이름’보다 더 섬뜩하다.

galzby@donga.com



21일 주먹다짐 벤치 클리어링을 일으켰던 SK 김강민(오른쪽)과 LG 류제국이 하루 뒤 경기 전에 만나 화해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 | SK 와이번스

‘주먹다짐’ 류제국-김강민, 쿨하게 화해

보자마자 웃음 터트리며 악수
“형 미안” “내가 먼저 때렸잖아”

“형, 미안해요.”(LG 류제국) “내가 먼저 때렸는데 뭘... 미안하다.”(SK 김강민)

22일 문학구장 1루 측 덕아웃. 훈련을 마친 김강민이 덕아웃 쪽으로 나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인공은 다름 아니 류제국이었다. 둘은 서로의 얼굴을 보자마자 웃음을 터트렸다. 전날 주먹다짐까지 벌였던 격한 감정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류제국은 “형 미안해요”라고 사과를 먼저 건넸고, 김강민은 “내가 먼저 때렸는데 뭘. 내가 미안하다”며 화답했다.

류제국과 김강민은 21일 문학 LG-S K전에서 주먹다짐이 오가는 격렬한 벤치클리어링을 벌였다. LG가 7-4로 앞선 5회말, 마운드 위에 있던 류제국의 공이 타석에 있는 김강민의 옆구리를 강타한 게 사건의 발단이였다. 김강민은 지난날 8일 옆구리 부상으로 2군에 내려갔다가 최근엔 야 1군에 풀업됐다. 그에게 옆구리는 예민할 수밖에 없는 부위였다. 그런데 류제국의 공이 하필이면 옆구리고 날아갔다. 결국 둘은 주먹을 휘두르는 싸움을 벌였고, 양쪽 벤치에 있던 선수들이 우르르 그라운드로

쏟아져 나와 대치했다. 둘이 퇴장 당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KBO는 23일 류제국과 김강민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류제국은 다음날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었다”고 말문을 열고는 “처음에는 (김)강민이 형이 장난을 치는 줄 알았다”며 웃고는 “그런데 주먹이 날아오니까 나도 모르게 우렸다. 형이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내가 막고 피했어야 하는데 그걸 참지 못했다”고 후회했다. 이어 “경기가 끝나고 형에게 바로 전화했다. 사과했더니 형도 괜찮다고, 자신도 미안하다고 하더라. 최근에 옆구리가 아팠던 적이 있어서 그랬다는 것을 경기 끝나고 알았다”고 설명했다.

김강민도 “옆구리 부상을 당하고 올라온 지 얼마 안 돼 공을 맞다보니 나도 모르게 화가 났다”며 “그래도 참았어야 했는데 그래서 지 못해서 (류)제국이한테 미안하다”고 말했다.

SK 김용희 감독은 “양 팀 주장이 조금 더 차분하게 행동했어야 했다. 팬들에게 보여줘선 안 될 모습을 보여줬다. 팀 분위기가 나쁘다 보니 순간적으로 감정을 참지 못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LG 양상문 감독도 “김강민이 다쳤던 부위라 감정이 격해졌 게 아닌가 싶다. 그래도 그라운드에서 싸우는 건 안 된다”고 충고했다. 문학 |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흠치고, 달리고...염경엽표 ‘디테일 야구’



목동구장에서 고척스카이돔으로 바뀐 환경에 넥센 염경엽 감독은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스포츠동아DB

도루1위, 3루타도 25개 압도적 1위
3구이내 배정승부 ‘리그 최소 볼넷’
염감독 “이것저것 시도하며 공부중”

넥센 염경엽 감독은 스프링캠프 출국 전부터 “디테일 야구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지난해까지 넥센의 확실한 팀컬러였던 장타력 실종을 상쇄할 확실한 대안이였다. 박병호(미네소타)와 유한준(kt)이 이탈했다. 2015시즌 76홈런(박병호 53개·유한준 23개)을 합작한 둘의 이탈은 가장 큰 걱정거리였다. 또 목동구장에서 고척스카이돔으로 홈구장을 옮겼다. 그러면서 펜스거리가 종전 좌우 98m·중앙 118m에서 좌우 99m·중앙 122m로 멀어졌다. 염 감독은 “박병호, 유한준이 잔류했어도 어차피 홈런은 줄었을 것”이라며 애써 위안 삼았다. ‘염경엽표 디테일 야구’는 그렇게 시작됐다.

염 감독은 디테일 야구를 선언하며 “수비와 주루를 강화하고, 투수의 견제 동작과 슬라이드 스텝 등 작은 부분을 통해 실점을 줄이는 야구”라고 설명했다. 염 감독은 1차 캠프 당시 수비와 주루 훈련에만 80%의 비중을 뒀다. 투수

들에게는 “3구 이내에 공격적인 승부를 하고 릴리스 타임을 줄이라”고 강조했다. 연습경기 당시 선수들이 결과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는 과정이 중요하다. 연습했던 부분을 실전에서 적극 활용하라”며 일침을 가했다. 선수들은 감독을 믿고 따랐다. 염 감독은 캠프 종료 시점에 “디테일 야구의 완성도는 50%다. 아직 진행형이다”고 했다.

●두려움 없는 야구→도루·3루타 1위

지금까지는 염 감독의 생각대로 흘러가고 있다. 넥센은 22일까지 리그 3위(36승30패1무)다. 여러 지표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도루 1위(70개)다. 도루 시도 역시 102회(70성공 32실패)로 리그에서 가장 많이 뛰었다. 벌써 서건창(13개), 김하성(12개), 고종욱·임병욱(이상 10개) 등 4명이 두자릿수 도루를 채웠다. 주루 훈련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염 감독과 선수들의 노력이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고무적이다.

3루타도 25개로 압도적인 1위다. “홈런이 줄어들었지만 고척돔의 넓은 좌·우공간을 활용해 장타를 만들 수 있다”던 염 감독의 공언은 허언이 아니었다. 넥센 타자들은 고척돔에서만 3루타를

16개나 쳤다. 우중간을 가르는 타구에 타자들은 거침없이 3루로 내달린다. 당연히 득점 확률도 높아진다. 득점권에서 팀 타율 0.322, 13홈런을 기록하며 집중력을 발휘한 것도 한몫했다.

●“3구 이내 승부하라”→리그 최소볼넷

볼넷 허용은 199개로 최소 1위다. “3구 이내에 승부하라”는 코칭스태프의 조언에 투수들이 응당한 결과다. 지난해 67경기에서 257개의 볼넷을 허용했던 넥센 마운드의 완공달래다. 팀 방어율(4.64)은 4위인데, 불펜방어율이 2위다(4.18). 이보근~김택형~김상수~김세현은 믿을 수 있는 필승계투로 자리매김했다. 넥센 손혁 투수코치는 “필승계투요원들이 이기고 있을 때 확실히 막아주니 계산이 선다”고 말했다. 팀 도루저지율도 42.9%(84시도 36도루저지)에 달한다. 이는 포수 박동원의 강한 어깨(도루저지율 48.1%)와 슬라이드 스텝을 향상한 투수들의 합작품이다. 염 감독은 “올해 야구가 재미있다”며 “이것저것 시도하면서 많이 공부하고 있다. 투수들이 3구 이내에 승부하기 시작하니 상대도 빨리 공격하려는 게 보인다. 그 자체로 성공”이라고 말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SK 세든 방출...새 투수 후보는 트리플A 출신 ‘라라’

SK가 외국인투수를 교체한다. SK는 21일 세든을 KBO에 웨이버공시를 신청했고, KBO는 22일 웨이버공시를 했다. 세든은 2013시즌 14승6패, 방어율 2.98로 특급유망 노릇을 했지만, 일본과 대만을 거쳐 지난해 다시 KBO리그로 돌아온 그는 예전과 같은 위

압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올해 SK와 재계약에 성공했지만 5월부터 성적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10일에는 결국 2군으로 내려갔다. SK 관계자는 “세든과 결별하기로 결정했다. 세든이 경기 전 선수단을 찾아와 인사를 하고 갔다”고 귀띔했다.

세든을 대체할 새 외국인투수로는 브라울리오 라라로 점쳐지고 있다. 라라는 메이저리그 경험은 없지만 올 시즌 샌프란시스코 산하 트리플A 새크라멘토에서 25경기 1승1패, 1세이브, 방어율 3.90을 기록했다. 보직은 불펜이었다.

홍재현 기자

편집 | 최해경 기자 hk7048@donga.com

다시 웃은 두산 ‘90년생 트리오’

〈정수빈·허경민·박건우〉

kt전 정수빈·허경민 4득점 합작
1번 박건우도 2안타2득점 펄펄

두산 정수빈(26)과 허경민(26)은 팀의 선두 집중에도 마음 놓고 웃지 못했다. 지난해 한국시리즈 우승을 견인했던 둘은 올 시즌 들어 21일 경기 전까지 규정타석을 채운 56명의 선수들 중 타율 54위(0.252)와 51위(0.263)에 그치며 좁혀 타격감을 찾지 못한 상황이었다. 특히 ‘잡실 아이돌’ 정수빈은 특유의 미소 대신 굳은 얼굴로 연습에 임하는 경우가 잦아졌고, 허경민 역시 “고소공포증이 있어 높은 타율에서 금방 내려온다”는 자조 섞인 말로 본인의 부진을 대신했다. 둘과 함께 두산의 ‘90년생 트리오’를 이루는 박건우(26)가 16일 광주 KIA전에서 역대 20번째 사이클링히트를 기록하며 최고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었다.

그러나 정수빈과 허경민, 두 친구의 반전은 같은 날 함께 일어났다. 21일 잠실 |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실 kt전에서 둘은 함께 5안타 4득점 3타점을 합작해 팀의 12-1 대승을 이끌었다. 2번타자로 나선 정수빈은 1안타 3득점으로 테이בל레이터 역할에 충신했고, 7번 허경민은 개인 한 경기 최다기록과 동일한 4안타를 때려내며 손맛을 봤다. 이날 1번타자를 맡은 박건우까지 2안타 2득점으로 활약해 세 친구는 오랜만에 함께 웃었다.

22일 만난 정수빈과 허경민은 이전보다 밝은 얼굴로 덕아웃에 얼굴을 비쳤다. 얼굴이 좋아졌다는 기자의 질문에 정수빈은 “어제 잘 잔 것보다 오늘 비가 오고 있어서 (잘 수 있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라며 멋쩍게 답했다. 이를 지켜보던 허경민은 “내가 아마 4안타 쳤던 적이 3번 정도 있었을 것”이라며 “어제는 퍼펙트게임 상황이라 오히려 타격보다 수비가 더 부담됐다”며 전날 상황을 대신 전했다. 타율 하위권에서 주춤했던 둘의 동반 상승에 선두 두산은 활력을 두 배로 얻게 됐다.